



‘코로나19’ 걱정에 공연장 찾기 어렵다면

네이버tv에서 원하는대로 관람하세요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지역 내 공연장은 문을 닫았고 영화관, 미술관 등 문화공간에 대중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공공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외출을 삼가는 요즘, 코로나 19를 피해 집에서 네이버 tv로 공연을 관람해보는 것은 어떨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창작산실(이하 창작산실)이 네이버 tv를 통해 선보이는 공연 생중계가 3월까지 이어진다. 창작산실은 공연예술분야(연극·무용·전통예술·창작뮤지컬·창작오페라)의 제작부터 유통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우수창작레퍼토리를 발굴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이다.

공연 생중계의 가장 큰 장점은 유명 작품을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전통 공연, 쇼케이스 등 다양한 무대를 공연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객들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그동안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장르의 공연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마음껏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공연 생중계를 시작한 창작산실은 현재 '2019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에 선정된 25개의 작품 중 18개 작품을 네이버 tv를 통해 선보이고 있다.

21일 오후 7시에는 무용 '바다리' (미나유)이 방영된다. 이 작품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며 고민해 보게 한다.

22일 오후 5시에 만날 수 있는 전통예술 '오래된 미래'는 100년간의 근현대사 흐름 속에서 희미하게 남겨져 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색다른 관점으로 조명한다. 강은일 해금플러스가 출연하며 해금선율과 피리, 타악, 피아노의 선율의 조화를 통해 한국음악의 새로운 잠재성을 선보인다.

25일 오후 8시 중계되는 연극 '마트로시카' (극단 수)는 직원들의 자살이 빈번히 일어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월까지 네이버TV 공연생중계
뮤지컬·클래식·오페라·무용·전통공연 등 18개 작품
22일 강은일 해금플러스 '오래된 미래', 25일 '마트로시카' 등

있는 회사인 '알파 노트북'을 배경으로 한다. 회사는 직원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자살 시도는 계속 이어진다. 회사의 모습은 마치 '마트로시카 인형'처럼 크기만 달라질 뿐 같은 모습이 반복된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자본주의에 발목잡힌 사람들의 비극을 다룬다.

고전발레 '백조의 호수'를 진영과 분단, 정치적 대립과 통일사회의 현실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재해석한 무용 'Swan Lake: The Wall' (정형일 Ballet Creative)은 28일 오후 8시에 중계된다.

모파상의 단편소설 속 주인공을 통해 무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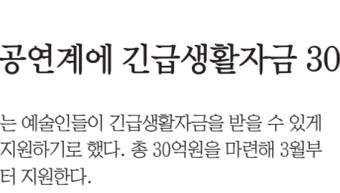
넘어 관객과 토론을 시도하는 관객 참여형 연극 '의자 고치는 여인' (극단 불결)은 3월12일 오후 8시에 만날 수 있다. 한 남자를 위해 일생을 바친 여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밖에 무용 '호모 파베르', 발레 '오월바람', 전통예술 '팔음(八音)', 뮤지컬 '비바 프

렌드',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무용 '신정 랩소디' 등이 영상을 통해 관객과 만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또 '영상화를 통한 대중화'를 목표로 지난해 12월 CJ CGV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연극, 뮤지컬, 무용, 전통예술, 오페라 등 5개 장르의 창작공연 25편 중 4개 작품을 선정해 CGV 극장에서 상영할 계획이다. 창작 공연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지역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서울 대학로에서 공연을 마치는 3월 말부터 지역 주요 거점인 호남권(광주)·영남권(부산)·충청권(청주) 등 3개 권역 상영관에서 진행한다.

연극 '마트로시카' (극단 수)는 직원들의 자살이 빈번히 일어나고

무용 'Swan Lake: The Wall'



무용 'Swan Lake: The Wall'

연극 '의자 고치는 여인' (극단 불결)은 3월12일 오후 8시에 만날 수 있다. 한 남자를 위해 일생을 바친 여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밖에 무용 '호모 파베르', 발레 '오월바람', 전통예술 '팔음(八音)', 뮤지컬 '비바 프



연극 '마트로시카'



연극 '마트로시카'

연극 '의자 고치는 여인' (극단 불결)은 3월12일 오후 8시에 만날 수 있다. 한 남자를 위해 일생을 바친 여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밖에 무용 '호모 파베르', 발레 '오월바람', 전통예술 '팔음(八音)', 뮤지컬 '비바 프

렌드',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무용 '신정 랩소디' 등이 영상을 통해 관객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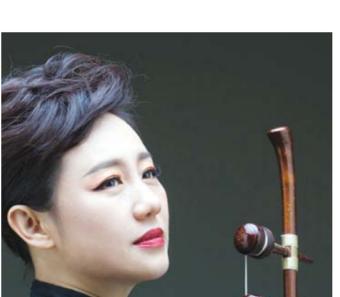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또 '영상화를 통한 대중화'를 목표로 지난해 12월 CJ CGV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연극, 뮤지컬, 무용, 전통예술, 오페라 등 5개 장르의 창작공연 25편 중 4개 작품을 선정해 CGV 극장에서 상영할 계획이다.

창작 공연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지역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서울 대학로에서 공연을 마치는 3월 말부터 지역 주요 거점인 호남권(광주)·영남권(부산)·충청권(청주) 등 3개 권역 상영관에서 진행한다.

연극 '마트로시카'

연극 '마트로시카'



연극 '마트로시카'



연극 '마트로시카'

‘공주감염 측우기’
‘대구감염 측우대’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
국보승격...세계 유일



공주 감염 측우기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것으로 알려진 측우기(測雨器)가 국보로 승격됐다. 또한 측우기를 놓는 받침인 2점의 측우대(測雨臺)도 국보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은 서울 기상청이 보관하고 있는 보물 제561호 '금주 측우기'를 '공주감염 측우기'라는 명칭으로 바꾼 국보로 지정했으며, 기상청 소장 '대구 선화당 측우대'와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창덕궁 측우대'도 '대구감염 측우대'로 각각 이름을 바꿔 국보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보 제329호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는 조선시대 충남지역 감독관청이었던 공주감영에 설치됐으며 1915년 경 일본인 기상학자 오다 유지가 국외로 반출한 뒤 1971년 환수돼 지금까지 서울 기상청이 보관해 왔다.

조선시대에는 중앙정부에서 측우기를 제작해 전국 감영에 보냈기 때문에 여러 점이 제작됐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은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만 유일하게 남아 있다.

세종 재위기에 처음 제작된 측우기는 조선 과학 기술을 상징하는 강수량 측정기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24년(1442) 기록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쇠를 주조(鑄造)하여 기구를 만들어 명칭을 측우기라 하니, 높이가 1자(尺) 5치(寸)이고 직경이 7치(寸)이다. (중략) 객사의 뜰 가운데에 대를 만들어 측우기를 대 위에 두도록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또한 바닥 면에는 '통인(通引)', '급창(及淸)', '사령(使令)이라는 직책을 지닌 사람들이 관련 업무를 맡았음을 알려주는 글이 새겨져 있다.

문화재청은 "제작 시기와 연원이 명확할 뿐 아니라 농업에 관한 과학적 발명과 구체적인 실명을 증명해주는 유물로서 인류문화사의 관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



대구 감염 측우대

문체부, '코로나 19' 피해 공연계에 긴급생활자금 30억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공연업계를 위한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20일 서울 대학로 소극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한 뒤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연 취소·연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

는 예술인들이 긴급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총 30억원을 마련해 3월부터 지원한다.

관객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소규모 공연장 430개소에 소독·방역용품, 휴대형 열화상 카메라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기업이 경영 애로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경영지원센터 안에 '코로나19 전담창구'

도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공연단체에 피해를 보전해 주는 방안도 현장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총 21억원 규모로 4월부터 시행한다.

공연계는 코로나19 확산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지난달 말부터 예매 건수가 급감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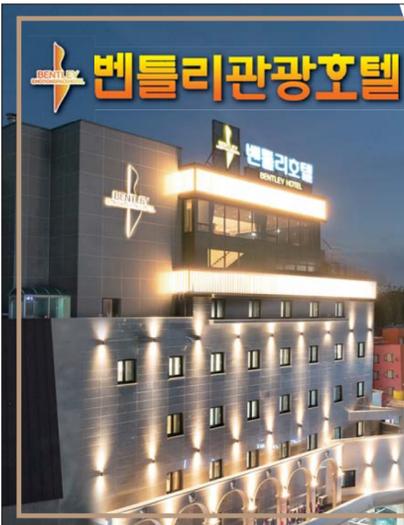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2020년에도 “**각종 연회 행사**”는

벤틀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